

#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과 노조민주화 투쟁

오랜동안 노조민주화 투쟁을 벌여 오면서 차마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폭력과 탄압을 감당해야 했던 해고 노동자가 각계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왔다.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자

우리는 지금 문민 시대를 살고 있다. 군사통치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민주화 된 시대도 아니다. 문민정부의 허울을 벗어버리게 한 것은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94년 전지협 파업, 95년 한국통신의 투쟁, 그리고 96년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겪으며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은 문민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실감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자본과 정권, 그리고 언론의 결탁에 의해 은폐된 노동탄압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가 다녔고 지금도 나의 사랑스런 동료들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고발의 대상이다.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은 재벌의 탐욕과 공권력이 결탁한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한국타이어와 노동조합

한국타이어는 매출액 1조원이 넘는 사업장이다. 1979년 신탄진(대전)공장을 준공한 이후 10배가 넘는 매출신장을 가져온 회사로 금호타이어와 함께 국내 타이어의 생산과 판매, 수출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에는 연간 2,3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금산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의 급속한 성장 뒤에는 노예적 노동통제와 잔인한 탄압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다.

물론 한국타이어에는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조합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조합원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이다.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간접 선출되고 각 지부(영

동포, 인천, 신탄진, 재원)의 지부장은 위 원장이 임명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95년 투쟁과정에서 발견된 조합비 사용 영수증의 내역이다. 조합비가 각 기관의 뇌물, 회사측 간부들의 회식 비용으로 사용되고 그들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노동통 제 비용으로 쓰임이 밝혀진 것이다.

### 강제 노동과 노동자의 저항

근로기준법 위반, 비인간적인 강제 노동에 맞선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은 87년이래 계속되었다. 90년 산재사망사고를 계기로 한 '한올회' 투쟁, 그리고 연이은 자발적인 투쟁은 탄압으로 무너졌으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1994년 11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활동하였던 16명의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시기의 투쟁과 패배의 경험, 어용노조의 성격,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총정리하여 현장에 맞는 조직과 투쟁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조합원대중의 요구를 목살하고 회사의 노무관리자로 전락한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 강제 노동 및 폭력 테러의 중지'를 목표로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조직화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모임과 활동은 1995년 초 치러진 '한국타이어 노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그 힘을 더욱

확대하여 갔다.

이후 1995년 2월 12일에는 어용노조 민주화를 위한 '95년 선기대책본부'를 결성하고 대전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선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투쟁은 위력적이었다. 투쟁의 시작은 해고자들의 정문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곧이어 조합원들의 요구는 분출되었다.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인 강제잔업·조기출근 거부, 휴일근로 거부, 산재보상 요구는 전체 공장 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억압과 착취에 짓눌려 지내던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의 불길은 누구도 꺾지 못했다. 그 결과 40년간 노동자를 배반하고 회사와 결탁하였던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에게 점거되었다. 21일간의 장기적인 농성투쟁을 통해 회사측의 노동탄압은 사회문제화 되었고, 결국 대전 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사장 흥건희를 비롯한 18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노동부는 회사측에 강제근로, 폭행, 산재처리 회피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3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95년 투쟁은 민주노총 대전지역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 전체를 포괄하는 대책위원회 활동과 긴밀히 결합한 연대투쟁이었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다. 조합원의 요구에 충실한 투쟁은 승리한다는 것, 한국타이어 투쟁의 승리는 연대 투쟁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 자본의 반격과 집중되는 대탄압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확보한 우리들은 6월 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 첫사업은 6월 12일 건설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이하 노민주)였다. 노민주 출범 일주일 후인 6월 21일 노동자 착취의 밑뿌리를 뒤흔드는 6월 농성투쟁이 터졌다. 노동자를 기게 부속품으로 여기는 한국타이어 사용자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노조활동 보장, 징계 철폐 등 양보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미소는 한순간에 돌변하였다.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허둥거리던 자본과 권력기관, 어용집행부는 전열을 정비하고 공세를 시작하였다.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면서 사업장 전세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김·경, 노동청, 조직폭력배가 한 덩어리가 되어 노동탄압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사측은 농성투쟁에 참가하였거나 노민주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간부, 대의원 10명을 해고하고 50명을 지점으로 강제 발령하였다. 김·경은 핵심지도부들을 연행, 구속, 수배하고 16명을 기소하였다. 한편 노동청은 그 동안 회사측의 탈법적 노무관리와 폭력에 대한 고소, 고발을 무혐의 처리하고 충남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관련 구제신청서를 100% 기각하였다. 어용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민주 대의원과 조합원 11명을 제명하고, 단체협약안을 조합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날치

기 통과시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노동진영은 자본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하였다. 투쟁의 구심을 담당하였던 지도부가 현장에서 격리되자 조합원의 투쟁은 광복한 탄압에 잠복하였고, 투쟁에 함께 하였던 민주노총 지역추진위등 지역노동단체의 연대 활동도 중단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활동가 내부의 이견과 대립이었다. 6월 농성 투쟁의 마무리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던 일부 간부들이 노민주 조직을 떠나갔다. (이후 이 동지들은 '실천하는 노동자회'를 결성하였다)

진혹한 노동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던 노조탄압 세력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막강한 자본이 대탄압을 자행하고 있을 때 내부가 분열되고 연대 고리가 끊어진 것은 노동자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 계속되는 저항과 짐승들의 노래

현장과 노민주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자 활동가들은 대대적인 선전홍보전에 들어갔다. 대전 지역에서만 약 20만장의 전단을 배포하면서 시민들에게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을 알렸다. 96년 4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공간을 활용하여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민련 이인구 후보에게 지역 현안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약 30만장의 전단을 충청지역 노동조합과 각계 각종 민주인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타

이어의 노동탄압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한국타이어 지점에 들과 화위병을 던지기도 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도 노동자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들은 탄압의 칼끝을 수배자 가족과 투쟁을 지원하던 지역의 여성 동지에게 돌렸다. 이들이 느린 것은 지원과 연대의 파괴였다. 이들은 전문 강도, 강간 전과자를 고용하여 연약한 여성들에게 무시막지한 폭력과 강간, 추행, 테러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재 걸·경에 고발된 상태이나 사실상 미제사건으로 종결되고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를 역수사하는 우스운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야수적 탄압에 민주노총 대전 충남 본부를 비롯한 지역단체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투쟁의 확산과 지지 연대는 그만두고라도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여론조작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은 물론 전국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우리 활동의 문제와 함께 철저히 끊어진 연대의 파괴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 일에서는 사람들

한국타이어 노민추 활동가들은 대부분 해고된 상태이다. 해고자들에게 검찰과 법원은 2,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생활과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해고자들에게 2,000만원 벌과금은 천형(天刑)과 같은 일이다. 투쟁은 고사하고 막노동판으로

나가 벌금부터 벌어야 하는 것이 해고자의 생활이었다. 더욱이 회사측은 짐승만도 못한 탄압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에 제소하여 97년 2월부터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던 해고자 4명에게 2억 7천만원의 손해 판결을 이끌어냈다.

자본의 탄압은 우리를 다시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게 하였다. 감추어진 한국타이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수배된 해고자가 전국을 돌며 친인공노협 탄압의 실상을 알리고 있으며 국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단체, 언론사 등 모든 단체를 찾아 다녔다. 이 활동의 성과인지 모르나 지난 6월 민주노총 임시중앙위원회에서 한국타이어의 잔혹한 노동탄압의 실체가 처음으로 보고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하길 기원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이 투쟁의 주체임을 잘 알고 있다. 투쟁의 불길은 한국타이어 노민추와 해고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6월 20일부터 해고자를 중심으로 죽음을 무릅쓴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간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작업장에는 우리의 동료들이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있으며 그간 이완되었던 연대의 틀도 재구축되고 있다. 활동가들도 재결집하여 투쟁의 팽창으로 모이고 있다. 노동현장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의 동지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